

「칠십년이 차면」

예레미야 29:10-14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올해는 일본이 전쟁에 패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 중에 일본교회는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침략전쟁에 협력해 이웃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모의 「광야 40년」을 보냈으며, 고통스러운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은 무엇이였는지, 기본적인 것을 정리하고, 일본 교회의 전쟁중과 전쟁후의 모습을 뒤돌아 보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할지 함께 성경으로부터 배우길 원합니다.

먼저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다윗왕조때 절정기를 맞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우상숭배를 시작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시키셨습니다. 예언자나 선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왕국을 개혁하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딪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되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남왕국도 예루살렘이 붕괴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망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한테 2년간 포위된 후에 정복되었습니다. 그때 삼분의 일은 칼에 의해서, 삼분의 일은 굶어 죽고, 남은 삼분의 일은 살아 남았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며, 남은 자들은 쓰레기더미가 되어버린 팔레스타인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기나라가 멸망돼 완전히 이세상에서 소멸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신전과 예루살렘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신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 사시는 도시로, 자신들의 신은 천지를 지으신 주이시며 지배자입니다.

이집트의 신들도 격파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들도 대적할 수 없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 신의 궁전, 하나님의 도시가 파괴될 리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전도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자랑이었던 것들이 모조리 빼앗겨 없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굶어죽거나 전사한것에 비하면 좀 나을지 모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나라가 멸망했어도, 자신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포로」라고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예레미야 25:11)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간,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냐와 같은 거짓 예언자도 나타나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하나냐는 ,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은 2년으로 끝나 유다는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28: 2-4, 10-11)

그 말에 현혹되어 쉽게 소망을 품은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에 의해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한」죄악으로

하나냐에게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고 예언했으며,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를 치시어

하나냐가 그 해 일곱째 달에 죽게 되었습니다. (15-17)

29장에서는, 거짓예언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쉽게 소망을 품지 않도록,

예레미야는 이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29:1-3)

그 내용은,

포로생활이 금방 끝나지 않으므로,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4-9절)

그야말로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써서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

(10-11절)

이 말씀에 의하면,

먼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어질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입니다.

「70」은 완전수 「7」의 「10」배이므로, 완전의 완전이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 완성되어지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시편 90:10)이라는 말씀처럼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문자 그대로 일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십계명에서는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출애굽기 20:5)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 사대까지」라고 하면

죄를 지은 본인과 그 자식, 손자, 증손자까지로 대략 「70년」이 됩니다.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거짓 예언자들이 말한 「2년」이 아닌, 매우 긴 기간입니다.

한 사람의 전 생애의 길이기도 하며, 동시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손자, 증손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70년」은 긴 기간이지만 그래도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삼 사대」는 길지만, 「자자손손천대」는 아닙니다.

「70년」으로 한정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70년」으로 기간을 잡으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비참한 「포로」생활을 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그들을 저주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포로생활」70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다시 말해서 재교육 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셨습니다.

재앙이라는 말은 「악, 사악, 불행, 화」라는 의미입니다.

「장래」는 「마지막, 결말, 끝, 미래, 생존자(remnant)」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악의로, 재앙으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맛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0년」이라는 고통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포로생활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70년」간,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앞에 서셔서

바벨론에 복종시켜 축복을 막으셨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기위한 「소망」있는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전은 분명히 있었지만,

자기들한테는 신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안주해,

그 안에서 태양숭배와 우상숭배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8:5-18)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나 성스러운 장소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괴하셨던 것입니다.

「이런건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벨론군에 의해서 가차없이 예루살렘과 함께 때려 부수셨습니다.

신전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배우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당예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전이 파괴 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새롭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시는 생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평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새롭게 재교육 받아 고쳐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민수기 14:34)

「40년」을 들어서, 꼼꼼하게, 질린다 싶을 정도로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바벨론에 포로가 될것이라고 예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주는 너희들을 열방 중에 흠으시리라」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 몇 사람이, 주가 쫓으신 열방 중에 남겨지리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교도사회에서 우상숭배에 빠진 생활을 실컷 맛보게 되지만,

결국에는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신명기4: 25-30)

여기에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가 명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최악의 생활을 철저히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거짓이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행하고 싶은 바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되고 싶다고 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하루정도는 될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마음으로부터 원해서 행하는 것은, 일생을 들어서 자기것이 되도록 몸에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저주받은 바벨론 포로 70년생활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를 뒤돌아 보고 반성합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똑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라기 보다

똑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

다시는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겪고 싶지 않다 , 라고 마음으로부터 기원하게 됩니다.

일본교회는 큰 잘못을 저질러

「광야 40년」「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지나 왔습니다.

그런 일본교회에도 귀중한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죄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학사관이라고 해서 그냥 묻어버리지 말고, 실패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해서

「삼대, 사대의 저주」를 뛰어 넘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토대를 만들어 갑시다.